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綏遠紛爭과日中交涉

一

川越大使와 張外交部長間에 進行되고 잇든 日中交涉은 그結果 어떠한 成功을 보일는지 그로써 極東의 風雲이 흔들리고 또 暴풍과 世界의 大勢가 올 衆에는만큼 日中兩國民은 勿論이요 全世界의 關心을 바티오는때 突然 綏遠에잇서서 內蒙軍과 傅作儀軍의 衝突이 이러나자 中國側은 그 衝突을 日本의 使嗾로 推斷하야 外交部로부터 日本交涉의 中心聲明을 發하기로 決定하얏다고 傳한다 本來 中國側에서는 日中間懸案의 全面的解決을 그다지 질기지 안튼 터로 日本政府의 强硬한 態度아래 不得已交涉을 열어 오든터라 綏遠紛爭을 機會로써 또 한번 遷延을 圖할 것도 잇음즉한 일이것지만은 그렇다도 綏遠紛爭으로 因하야 極東의空氣가 또다시 險惡化하지나 안흘까 日本이 中國의 交涉中止를 그대로 認定하고 말까 日中間 交涉보담도 더 一層 世人의 注目을 集中시키지 아니치 못한다。

二

滿洲國이 한번 생긴以後 極東에잇서서 列强 各國 互相對立의 地帶는 一步 後退를 마지 안케 되얏스니 그 곳 北中이 아니면 蒙古다。 北中은 方今防共問題와함께 日中間의 重大懸案을 이루어 잇는터로 더새로운說明이 必要치 안커니와 蒙古도 日蘇關係로 보나 딸아서 日本의 防共關係로 보나 적지 안흔 重大性을 띄우고 잇는 곳임이 事實이다。 今番 綏遠紛爭의 原因을 듯건댄 綏遠省內에 잇는 蒙政會管轄下의 十二旗를 傅氏가 武力으로써 占領한것、內蒙一方의 勢力者인 德王을 傅氏가 暗殺하려고 하얏다는것、王靖國軍의 一部가 蒙政軍攻擊을 目標하고 奧鎭方面으로 移動한 것等이나 그 原因이 무엇에 잇든지間 滿洲國을 이웃한 內蒙에 잇서서 紛爭이 일어 나는 것을 日本으로서 對岸火視할수는 업는것이다。 設使 滿洲治安에 아모런 影響이 미치지 안는다고 하더라도 內蒙人들이 蒙古는 蒙古人의손으로서 라고부르고 일어선다면 滿洲國의 建立과 發展을 爲하야 모든힘을 앗기지 안는 日本으로서 그것을 援助할지언정 中國과가티 防害하려고는 안할것이다。

三

今後의 問題는 綏遠紛爭이 日本의 使嗾이나 아니냐를 究明하는데 잇지안코 그紛爭으로 因하야 日中關係에 어떠한 波瀾이 이 떠하랴를 점치는데잇다。 蔣介石氏는 太原으로 쪼차 와서 軍事會議를 연結果 山西軍으로 하야금 어대까지 內蒙軍과 對戰케·하기로 決定하얏다고 傳하나 山西軍이 果然 蔣氏의命令대로 나아가랴도 疑問이요 또 內蒙軍을 能히 克服하고 中國의 統治를 如前히 굿게할수잇스랴도 疑問이다。 蔣介石氏는 어떠한 內憂나 어떠한 外患에 處하야서도 自己 勢力의 擴張을잇지 아니하얏스니 오늘날 蔣氏가 南中과 밋 北中의 一部分을 統一하고 잇는데는 滿洲國의 成立과 共產軍의 存在를 觀의 … 일음이 적지안다고 하야도 過言이 아니다。 綏遠紛爭을 契機로 山西까지를 完全히 自己掌中에 너흐랴고 하는것이 아닌가 疑心하는것도 한갓 山西側의 相爭하든 아니다。

四

그러나 事實로 蔣氏가 그러한 野望을 가지고잇고 또 그 野望이 實現된다고하자 日中交涉의 解決이나 內蒙統治의 收拾까지를 意味치는 못한다。 오히려 지금의 形勢로 보건대 山西에잇서서 蔣氏의 勢力이 세워지는날 北中問題는 더한層 複雜性을 加하야 질 뿐이다。 果然 蔣介石氏는 防共、北中等 諸問題에 잇서서 日本側의 要求를 全的으로 承認할것인가。 아닌가。 萬一 承認한다고 하면 蔣氏의 政治的勢力은 어떠한 變動을 보게 될 것인가。 아닌가。 蔣氏의 以夷制夷的外交는 바야흐로 重大한 難關에 直面되야 잇는것이다。 그는 그러한 難關에 處하야 잇슴에 不拘코 다시 以夷制夷的內治로서 自己勢力의 擴張을 꾀하야 가고 잇는 것이라고 보인다。

九國條約을基礎로 中國領土를保障
이든英外相十八日下院에서 關係國과協議言明

【倫敦十八日發同盟】 英國下院은 十八日 質問에 際하야 極東情勢에 對하야 質問이 잇섯는데 이든外相은 九個國條約에 基하야 中國의 領土完璧을 期할旨를 確言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英國政府는 極東事態에 對하야 常時 中國의 領土保全을 保障하는 九個國條約을 堅持하고 善處할 方針이다 最近 極東情勢는 憂慮할 事態에 이르러 政府는 以上方針에 基하야 이미 九個國條約締約國政府에 通牒協議를 發하고 此方針을 繼續하야 條約을 確保하기에 努力할것이다

또 海軍協定에 對하여도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獨逸政府는今日까지 海軍協定을恪守하고 所謂協定噸數를 超過하도록은 建艦치안하엿다 蘇聯政府와締結한 海軍會商의 內容에 關하야는 政府는 不絕히 他海軍國에 報告 意見을 求하고잇스므로 右協定成立의 結果 獨逸政府와의 協定에 惡影響을 미치는일은 업슬것이다 다시 政府는 近近 將來 一般的 海軍協定이 成立될것을 希望하고 잇다

米大使館附武官 綏遠地方에서 暗躍

【上海十九日發同盟】 歸化城來電에 依하면 天津駐屯 米國大使館附 陸軍輔佐官 콘스탄트少佐가 數日前 歸化城에 到着、綏遠東部의 形勢를 觀察하고 十八日 歸化城으로부터 平地泉에 至하야 傅作儀氏와 會見、戰況을 聽取한 事實이잇서 그行動은 極히 注視된다

日本側에서 宋哲元態度注視

【北平十九日發同盟】 冀察政務委員長 宋哲元氏는 二十九軍의 秋季演習統監、河北南部視察及 韓復渠氏와의 會見을終了하고 十八日 午後九時北平에 歸任하엿다 北平은 이제야 全市를 通하야 綏遠援助運動의 坩堝로化하고잇서서 學生運動은 益益激化하는 形勢에잇다 이지음 果然 宋哲元氏가 如何한 態度를 取할지 冀察이 中央化할與否의 計量器가될것임으로 日本關係方面에서는 宋哲元氏의 動向을 極히 重大視하고잇다。

行政機構改革問題
軍部態度硬化로 政府、唐慌히着手
(三) 金翰容

軍部가 陸海兩相의 共同提案의 形式으로 文書로서 行政機構改革을 要求한것으로서 軍部態度가 如何히 强硬하엿든가는 容易히 推測할수잇는바이어니와 이强硬態度를 誘致하게된 原因은 現內閣組閣當時에 軍部는 이것을 主張하야 各省廢合와 前提로·小數閣僚의 兼任으로 內閣을 組織하라고까지 要望하엿든것인데 廣田首相의 決斷이 내리지아니하야 陸相도 問題의 解決을 後日로 돌리고 一段 舊前대로의組閣을承認하엿든것이나、行政機構改革이 實際上 困難한것을알게된 首相의 態度가 漸次 消極的이되어 行革은 國策實施에 當然 必要한것、卽 局課廢合程度로써 하지안을 터이라고 編成하고 內閣制度改革은 全然 避하고 閣議中心主義로 나간다면 機構改革의 必要는 업슬것이라고 主張하는것을 알게된 軍部는 依然硬化하야 行革은 庶政一新의 先決條件으로 끗까지 必要하다는 立場에서 軍部兩相의 共同提案으로 그態度를 闡明하게된것이엇다。 이에 首相으로서도 이問題를 再考하지안흘수업시되어 陸軍大演習 直前으로부터 그終了後까지에 各閣僚와 個別的으로 會見하고 軍部案의 內容을 傳하야 그取扱方法을 協議하기 始作하엿는데 最初에는 軍部案의 內容을 비로소 알게된 閣僚들이 이만한程度의 改革이면 어떠케든 收拾되리라는 樂觀的意見을 波瀾한者도 잇섯스나 島田農相이 「機構改革은 中央보담 地方이 急務」라는 意見을 發表하고 首相에게 考慮를 要望한것을 契機로 閣內에는 漸次 軍部案에 不滿을 가지는 閣僚가 만허저서 軍部案 그自體의 改革的意義는 疑問이며 陸軍部內에서 要望되고잇는 早急한改革에는 愼重을 缺할 憂慮가 잇다고 軍部兩相을 除한 全閣僚가 首相의 漸進策을 支持하고저하는 傾向을 보엿스므로 軍部態度는 一層硬化하야 明年度에 彪大한 國防豫算이 出現하는 以上 行革도 議會前에 決行하지안흐면안된다는 强硬意思를 表示하게되엇다。 이에 行革問題를 繞코 政局은 緊迫을 加하게 되고 各方面에 이報道가 傳하자 行革問題로因한 政變說까지 도는等 微妙한 空氣에 잇섯는데 때마츰 南京에서 進行中인 日中交涉은 川越張會談을거처 川越蔣介石會見의 階段에잇섯는바 行革問題失敗로 政變이 잇스리란說이 放送되어 中國側은 交涉을 遷延하야 自國側에 有利하게 展開하려는 氣色이 엿보이게되엇스므로 外交官出身인 廣田首相인 것만큼 누구보담먼저 이에着眼하고 行革問題가 國際的外交에까지 惡影響을 주는데잇서서는 問題는 드듸어 重大化한터이니 改革着手는 이때이다고 決然히 行革着手를 決意하야 마츰내 十月廿三日의 閣議에서 首相은 同問題를 正式으로 內閣全般의 問題로하야 具體案을 考究하겟다는 旨를 表明하고 이問題에 對한 廣田內閣의 態度를 正式으로 決定하게되엇다。 卽 同日의 閣議에서 決定한바는 軍部兩相의 提案中에는 過般決定된 七大國策具現을 爲하야 必要한 改革도 包含하야 時急한것은 追加豫算으로 提出치안흐면 안될것도잇스며 各省官制改革에 關한것은 永久的性質을 帶한것으로 그施設變改에 關해서는 愼重考慮할 必要가 잇스므로 各閣僚가 分擔하야 硏究하고 그 具體的檢討方針으로 (一) 中央制度에 關해서는 馬場藏相、前田鐵相、賴母木遞相、平生文相의 四相會議에서 檢討할것 (二) 地方制度及議會制度改革에 關해서는 潮內相 林法相 島田農相 小川商相 永田拓相의 五相會議에서 檢討할것을 決定하야 마츰내 行政機構改革에 着手하게되엇다。 閣議後에 政府는 陸海軍大臣으로부터 提案된 行政機構改革問題로해서 政變이 起한다는 風說이 傳하야 中國側은 最近 日中交涉에 關하야 이를 利用하엿다고 傳하기도하엿다。 그러나 廣田首相은 熟慮로써 이改革에 邁進하기로되어 陸海兩大臣도 또한 首相의 取扱에 全幅의 贊意를 表하고 이에 極力援助하기로 하엿는데 이는 國家를 爲하야 幸慶不已하는바이라는 意味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야 政變의 浮說을 一掃하고 政局을 安定시키러 努力하엿는데 이것이 庶政一新을 標榜하고 廣田內閣이 組織된지 八個月만의 일이엇다。 그러면 同日의 閣議決定으로 檢討에 着手하키로된 陸海兩相의 共同提案이란것은 어떠한 內容을 가젓든것인가?

龐大한米海軍豫算 五億三千萬弗突破
無條約狀態에對備

【華盛頓發電】 米國海軍省은 十四日루즈벨트大統領에게 五億三千百萬弗을 突破하는 彪大한海軍豫算案을 提出하엿는데 權威잇는側으로부터 確聞하건대 事實上豫算은 五億六千萬弗이나되리라推測되며 그中 海軍航空局에 分配될것은 적어도 四千百萬弗에達할模樣이다 右는 海軍艦制度及 島嶼防備施設制度에 關한 條約의 滿期失效에依한 太平洋諸島 空軍根據地의建設、補助艦艇數增의 代艦建造、海軍士官定員數의 增加等의 費用에 分配될것이라解釋되는데 海軍當局은 此等立案을 正當化하기爲하야 空軍의西太平洋進出은 日本의南洋群島施設에 對抗하기爲함이라고하고 士官定員의 增加는 條約廢棄의 維持에 必要한定員에 不過하다고하고잇다

駐米新大使 王正廷氏赴任談

【上海十四日發電】 新任駐米大使로 近近 赴任할 王正廷氏는 米國着任後 中米軍事協定締結 或은 米國의 對中國援助를 要望하는等 極히 重大使命을 가진것이라하야 各方面으로부터 그活躍이 注目되고잇는데 十四日 赴任을 압두고 中國新聞記者에 對하야 左와如한談話를 發表하야 對日積極政策을 暗示하엿다

中國은 世界的產業國이되기爲하야 今後外國 特히 米國의 物資的 技術的援助를 必要로하는데 또中國의國家的向上을 爲하야 治外法權撤回의 實現을 期하지아니하면 아니되다 米國이 率先하야 撤回에應할것을 期待하야마지안는다

侍從長後任에 百武大將決定
鈴木氏는樞密顧問官에專任

【東京電話同盟】 鈴木侍從長辭任에 伴한後任은 海軍大將 百武三郞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二十日午後宮中에서 左와如히親任式을 擧行하기로 되엿다

海軍大將 正三位勳一等功四級 百武三郞
任侍從長

또此에伴하야 百武大將은 樞密顧問官으로 親任키로 되엿다

【東京電話同盟】 辭任한 鈴木侍從長은 樞密顧問官專任으로되어 左와如히 發令할터이다

侍從長兼樞密顧問官 鈴木貫太郞
依願免本官
專任樞密顧問官

兩教徒大衝突 死傷四百六十名

【배이루트 (시리아)十七日發同盟】 最近시리아地方에서 基督教徒와 回回教徒의 對立抗爭은漸次尖銳化하게 되엿다 十六日夕刻回回教徒側은 베이루트의 會堂附近에서 大會를열고 基督教徒排擊의 氣勢를올리엿는데 發端하야 兩教徒間에 大衝突을 이르키여 死者六十 負傷者 四百名을내엿다

夕刊後市況 十九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一四〇 (不變)
鐘新 一七九九〇 (不變)
日產 八三四〇 (一〇低)
東新 一四二〇〇 (一〇高)
◆橫濱 生絲 後引◆
當限 九〇八〇〇 先限 八八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六五〇 先限 六四二〇

上海罷業暴動化
會社側라야웃斷行

【上海十九日發同盟】 西部紡績地帶에 飛火한 罷業은 益益激化하야 內外綿은 第二 第五 第六 第七 第九의 五工場은 全然運轉中止、第三 第四 第八 第一의 四工場은 겨우 五、六割程度로 運轉하고잇다 또上海紡績의第三工場은 十八日午後十時三十分부터 罷業을 開始하얏스나、形勢惡化하야 暴動化의 念慮가잇스므로 十九日午前二時 全職工을 退去시키고 락아옷을 斷行하엿다 이지음아지演說을 行하야 暴行한 職工九名은 工部局警官에게 檢擧되엇다

紡績罷業 靑島에飛火

【靑島十九日發同盟】 上海의 紡績罷業은 靑島에도 飛火、市街西方에잇는 內外綿第二工場의 女工約二百名이 十九日 午前九時半 怠業을 開始、職場을 離하야 廠外에 나왓다 第二工場의 女工二百五十名도 此에 應하야 機械의 運轉을 中止하엿다 第一工場은 아직 就業하고잇스나 靑島全紡績에의 波及이 念慮된다는 意見이 一致하다

靑島日本人紡績 怠業開始

【靑島十九日發同盟】 靑島의 紡績罷業은 內外綿에繼續하야 日本人經營의 大康紡에서도 各工場怠業을 開始하고 內外綿은市政府의 鎭撫로 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各職工이職場에 들어갓스나 怠業部分이 殘存하다 紡績同業會는 午前十一時로부터 代表者가 參集하야 그對策을協議하고잇스나 今回罷業은 惡性이어서 經過에따라서는 在靑島日本人紡績의 로아웃도 不得已하다

佛內相自殺로 兩翼抗爭益激化

【巴里十八日發同盟】 불룸內閣은 社會黨出身의 俊腕 사랑그로 內相을 喪失하고 其後任補充問題로 困難에 逢着하게 되엿다 特히 去十三日 議會에서 사랑그로 內相의 信任投票를 通過식혓슴에도 不拘하고 內相의 自殺은 다시 疑惑을 깁게 하엿다하야 이機會에 다시本問題를 檢討할것이라는 見解가 强하다 閣員의 逝去에 對하여는 國葬으로 待遇하고 儀仗兵을 派遣함이 原則이나 사랑그로 內相의 潔白이 背後的으로 證明되지안흔 以上 이에反對하고 葬儀問題에잇서서는 벌서부터 政府黨과 反對黨과의 抗爭을 誘致할 情勢에잇다 一方 人民戰線內閣내서도 後任選擧에 對하야 各主張에 相違를 生한 것이 더욱 顯著하게되엿다 急進社會黨의 右翼派와 불룸首相一派의 左翼과의 間에 再次動搖를 生하지 안흘가 觀測되다

學務課長會議日程

各道學務課長會議는 十二月一日부터 三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열리는데 會議日程은 左와如하다

一日 總督訓示、局長演示、指示
二日 指示、協議
三日 狀況聽取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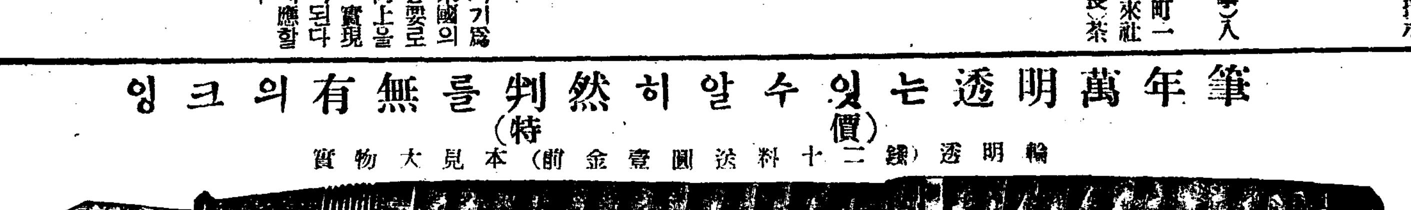
▲金世玩氏(仁川法院支廳判事)入京人事次來社
▲鄭杜泳氏(辯護士)市內公平町一三八番地에移轉開業人事次來社
▲具滋爀氏(基督敎彰文社社長)茶屋町七二番地로轉居

貿易調査研究會
貿易斡旋으로設立

朝鮮貿易協會에서는 朝鮮의對外貿易振興에 對應하기 爲하야爲先그調査研究를 行할것이 先決問題가되여 去十四日理事會에서 協議한 結果、貿易調査研究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海外市場의 調查研究、輸出好望品의 調査研究、貿易斡旋施設의 調査研究 其他貿易에 必要한調査研究에 進出하기로되엿다 委員은目下二十三氏에 交涉中인데 年內에第一回委員會를 開催할豫定이다

各種旋盤製作商
呈進錄型・富豊庫在
大阪市南區谷町六丁目
秋岡榮商店
電話東一九四五
振替大阪四二〇三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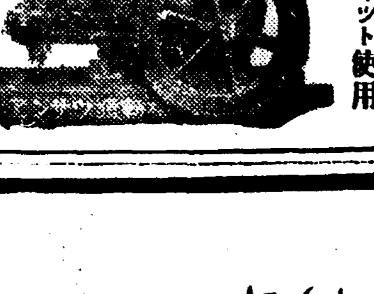
(印入專門)
タオル・ハンカチーフ各種木綿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心齋橋筋
商報呈 植田仁本店
電話船場四〇四〇番

잉크의有無를判然히알수잇는透明萬年筆
(特價)
輪明透 (前金壹圓 送料十二錢) 實物大見本

耐酸金張ペン付インキ止安全裝置
大阪市南區高實四番町七三 小倉製作所 振替大阪五五四八二壹番

錢入袋物製造御問屋
登錄商標 福本又兵衛商店
大阪市東區博勞町二丁目十三
電話船場三〇二〇五番
振替大阪七九〇八番
商報呈

各種作業服
コール天ズボン・青年團服
乘馬ズボン・半纏袴
大阪市東區博勞町
カタログ呈 橫田實商店
電話東四六九・四七 振替大阪一〇五六八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一朝에滋養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悶하시는분은곳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皮下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發賣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總販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MONAL FUKU
모나-루

農林省御推獎機
回轉式マグネット使用
エンサツ發動機

輕、石油式發動機、籾摺、精米製粉、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品豐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二六五、四四七
振替釜山三四六
(型錄進呈)
各地特約販賣店募集

好職業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羊皮類廣告
中國人羊皮專門商
新義州驛前通
寶成商店 謹告

紳士에게나淑女에게나좋은기름
ランラン洋髪香油
란란
곱적이지안는산뜻한기름

◇十一月十七日부터三日間
三大超特選大名畵景大衆料金十錢均一로大提供
十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始映
◇RKO社超特作日本版!!
娛樂映畵의絕對帝王篇!!
壯大·妖美·冒險·怪奇의 四重奏!!
洞窟의女王 全十一卷
監督메리안·C·쿠파氏作品
米國第一美人女優헤렌헤지쎈주演
一億百萬圓의價値의重寶篇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巨篇 폼페이最後의날 全十卷
巨匠메리안C쿠파氏
主演프레스톤포오스터氏
天地를火燒식히며地軸을깨트리고噴火大爆發殺人淫樂의都瞬時에옴지기는天地一夜中의地下에파뭇치는一世紀世界最大의慘劇의出現!:
◇大都映畵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現代活劇 曉의超特急 全七卷
日本일릿치 ハヤフサヒデト主演
新富座
新堂町 電本2 五三七

맛이一等! 만복

아지노모도친 음식은 맛이조타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鑛山出願은暴注! 許可處分은延滯
現在밀린것만도七年이걸려
眼鼻莫開의鑛山課

최근수년동안에 조선의 광업경기는 비상히 치렬(熾烈)하야금가격의 폭발적 등귀와아울러자연히 광출원건수가 추면격증하엿는데 이것은 처분에대하야총독부광산과에서는 매번직원을증원하야가면서 처리하나 아즉도출원광구로 처분지못한것이 실로 이만오천건의 다수에달한다 이것을 현재 한달의 처분능력삼백오십건으로 밀우어계산하면 아프로 칠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전부 처분할수가잇다한다 또 이외에 최근에 출원건수가 감소하엿다하여도매년사오천건의 출원이잇슴으로 도저히 일반출원자의 숙허원(宿許願)에 응할수업다는 형편으로 소화칠팔년에 출원한것이 아즉도 산떼미가티 광산과의 창고안에 몬지에파무처잇슴이라한다 더욱 광구출원의처분에 잇서서는 중복된 구역과경원(競願)등이 만허도면수정을 식히여야될뿐아니라 요새지대나 또는도로와 인가관계등의 공공적의미에서 현지의실지답사와 조사가필요한것이만허 처분이 간단히되지안허 광산과에서도 이문지에파무처잇는 출원광구의 처분에 머리를알코잇다한다

安城脅迫狀事件
原審대로 一年役求刑
日附印과筆跡相違가注目處

지난 칠월 여섯날을 경성로 안성군 미양면 마산리(安城郡 微陽面 馬山里)신현규(申鉉奎)씨에게 자귀는 조선군사령부과원이라 하고 군자금 이천원을 내라고 협박장을 우편으로 보냄 혐의로 열어섬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일년의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 해온 안성군 미양면 보체리(保體里) 정신모(鄭伸謨)(二一)에 대하여는 사실심리를 하기로 결정되엿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 사실심리 공판이 십구일 오후한시반부터 고등법원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 소완규(蘇完奎)변호사 렬석하에 열렷는데 사실심리에 들어가서 우편일부인(郵便日附)인이 틀리니 당연히 무죄판결을 내릴것이라고 무죄론의 주장이 잇섯다 검사는 피고의 자백한바와 우편일부인이 좀 틀린다 하여도 모든 점으로 보아 피고가한것에 틀림업스니 원심대로 일년징역의판결을 내려달라는 구형이잇슨다음 판결은 오는 二十六일에 내리기로하고 곳 폐정하엿는데 이사건은 우편일부인과 밋필적 기타여러점에잇서 원심판결에 오심이 잇다하야 사실심리를 다시하니만큼 그에게 어떠한판결이 장차내릴지 자못주목을 끈다

鹿島丸事件은 問題더욱複雜

【仁川】지난 시월이일 팔미도(八尾島)근해에서 청룡환(靑龍丸)과 충돌한록도환(鹿島丸)은 선객칠십여명을 수장지내게한이후 동사고가 불가항력이지 또는선장의 부주의인지가 가장주목되고잇든바 지난 십구일도 취장 정성윤(金成允)을 소환하고 대전(代田)사법주임이 엄중취조를 개시하고엿다 문제가문제이니만큼 여하한결과를 여줄지가 주목되고엿스나 사법관이 취조를 계시한만큼 엄준한형결을 보게는이리라고 관측하고잇다한다

酒豪의急死

십구일 오후두시십오분에 시내관철정(貫鐵町) 일백이십육번지 려관주인 김종원(金鍾元)(五六)이가 변사하엿다는 급보를 소관종로서에서 밧고 그죽은원인이 이상하야 곳 경찰의까지 현장에 출동하야 한참은 자살이나아닌가하야 상당히 긴장되엿스나 나종에 알어보니 그는 대주호로서 뇌일혈로 사망한것이 판명되엿다

初等教員任免權을 府尹에게賦與하라
京城府教育部會委員會에서
京畿道知事에게建議

긔부=경성부 제일부 제이부 교육부회의원간담회는 십구일오후두시에 경성부청 부윤응접실에서 열고 『경성부의 학교직원의 임면권(任免權)을 부윤에게 위임해달라고 경긔도지사에게 건의할건』을 토의하엿는데 두시간동안이나 신중히 토의한끄테 결국 일치가결하고 네시이십분에 폐회하엿다 각공립초등학교의 직원임명, 또는 파면의 권한은 종래에 도지사에게 잇서서 처리해왓스나 지사가 전권을 쥐고 잇는속 가끔 부당국자의 의사에 맛지안는 인사이동이 잇게되야 불편을 느끼게되는 일이 만흠으로 이번 경성부직제의 변경한긔회에 사무의 민속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야 잘 아는 부윤에게 그임면권을 위임해달라는것이라한다. 이에 대하야 경긔도지사는 어떠한 회답을 하게될는지 주목된다.

少年「스리」被捉

시내현저정(峴底町)사는 리성약(李成懸)(一八)(假名)과 박동옥(朴東玉)(一八)(假名)의 두소년도 적은 여들엿날아친여덜시반쯤되여 동소문에서 총독부압까지가는"뻐스"안에서 나이서른다섯살가량되는사람호주머니에서 돈 이백원을훔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삼사건의소매치기를 하고 동대문서에서 취조를밧고 잇는중이다

未成年者 禁煙禁酒令
審議終了、明春三四月頃公布

조선의 미성년자(未成年者)의금주(禁酒)금연(禁煙)법안(法案)이 이미총독부심의실의 심의를 마치고 총독 종감의결재를 거처서 법제국(法制局)에 돌리기로 되여잇는데 그내용은 일본내지의 금연법과 금주법을합처서 한가지제령(制令)으로하야 안을세운것인데 제일조에미성년자는담배를먹고 술을마시지못한이라고 분명히드러내고 이를 범한자는 일본내지의 동일한벌칙으로써 처단되고 도사정을알고서 미성년자에게 술과담배를 권하며 팔매하는자등도 각기처벌하게된다 명년삼사월중에는공포하게될터이라한다

社會事業의 根本方針確立
內務局에서連日協議

조선사회사업시설의 확충강화에 대하야는 대야(大野)정무총감의 새방침에 따라방금 대죽(大竹)내무국장유생(柳生)사회과장을 중심으로관계관의 사이에서 그구체안의작성에 신중협의를 하야 조선의실정에가미한 새사회정책을 세우게되엿는데 내무국에서 세운안의 골자는 조선의사회사업은 이미구제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로동의 긔회를 제공할것

一、구제의 필요가 잇는것에대해서도최소한도에 그치고 로동의지도 시설의확충을 도모할것

一、법규에의한 회일적구제를피할것

一、린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을조장하고 각종의시설을 할것

등인데 대야정무총감의 귀임을 기다려서 내무국안을 중심으로 다시 심의를 거듭하야 소화십삼년도 예산편성때에는 이것을 구체화시킬방침이라한다

訂正

二十日附夕刊 第二面 記載된 列車時刻表中 最終段의 開城新京間時刻表는 新山新京間의 次位에 記載될것이 誤植되엿슴으로 玆에訂正함

第三回全朝鮮아마튜어選手權及올림픽代表李奎煥歡迎 拳鬪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七日과二十八日兩日間午後六時半

場所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特設링

申請 十一月二十三日까지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三四番地 同聯盟으로(電話本一九四四)

主催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中央都賣市場 設置에反對

이번에새로설치 하기로된 중앙사매시장(中央卸賣市場)에반대의고세를올리고잇는 남대문시장유지들은지난십구일오후일곱시반부터 내식도원에모여서이에대한구체적방침을협의하엿스나아직도확정에는이르지못한대로폐회하엿다한다

(사진은 남대문시장 유지의회합)

逮捕된土地詐欺漢 途中에서脫走未遂
京城에서大邱로押送

강원도 춘천군(江原道春川郡)에 본적을 두고 대구(大邱)와 경성(京城)을 왕래하며 수만흔 부하를 부려가며 약이년전부터 토지사긔를시작하야 그동안의이만팔천원을사긔한 자칭광업가 리동순(李東順)(二一)은 부내 다옥정(茶屋町) 창곡(倉谷)려관에 들어갓다가 이리저리 숨어단이든중 십구일오후네시쯤에 대구에서 온 유형사(尹刑事)와 한명에게 화신(和信)아페서 체포되여 본정서(本町署)로 가는동 동척(東拓)아페서 외투를 버서버리고 도망을하라는것을 전긔두형사와 본정서원이 협력하야 로상에서 대격투를 연출한후 체포되여 오후열시오분차로 대구에 압송되엿다 그런데 이자는 그전에도 류치장을 교묘히 뛰여나온일이잇는 할주의 명인이라고한다.

韓炳琉君出獄

【咸興】제일차 태평양로동조합(第一次太平洋勞組)사건의주모자로 막사과(莫斯科)에서열린제오회푸로핀테른대회에 조선대표로 참가하얏든한병류(韓炳琉)(三二)는 지난칠월 류년의형기를 마치고무사히 함흥형무소에서 출옥하엿다

鄕客이大金紛失
龍山京城驛間電車속에서

충북 청주군 강내면 태성리(忠北淸州郡江內面台城里)에 사는 민영필(閔泳弼)(六三)이라는 로인은 십구일 오후 두시쯤에 룡산역(龍山驛)아페서 경성역(京城驛)에 이르는 전차속에서 현금이백이십삼원사십오전을 일허버리고 경찰에 호소하여왓는데 소매치기에게 피해를 바든것갓다고한다

世專籠球部一行 大邱에遠征
廿一日京城出發

京城世專籠球部一行七名은 二十一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李容高博士引率下에 大邱로 遠征케되엿는데 二十三日에는大邱高普, 二十四日에는 大邱醫專軍과 對戰할터이라고한다

人質奪還百二名 射殺二百五十名
安東省地區內土兵討伐成績

【新義州】안동성(安東省)경찰로벌대의 토벌(討伐)개시이래이달 오일까지의 안동성지구내(地區內)의 각부대의 토벌성적을 종합하야보면 반만군 토벌 홍군 마적등의 사살(射殺)이백오십삼을 필두로 하야 다음과가튼놀라운 수자를내이엿다한다

▲交戰 五六回
▲反滿軍、紅軍、土兵逮捕 九四名
▲同 射殺 二五三名
▲同 負傷 六九名
▲同逃走兵捕 一八九名
▲鹵獲品
1、輕機 一臺
2、長銃 七四本
3、彈丸 二〇四九發
4、拳銃 一三本
5、彈丸 一九〇發
6、乘馬 二匹
7、人質奪還 一〇二名
8、山砲彈 三三

曺檢事의最終審
檢事는上告棄却意見
辯護人은事實審理를要求

현직 검사의 독직사건으로일시 세상을시끄럽게하든전부산지방법원진주(晉州)지청검사(현재 휴직중)충남서천군비인면성내리(舒川郡庇仁面城內里) 조이환(曺利煥)(三九)에대한 독직사건 공판은 십구일 오후 한시부터 고등법원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산택(山澤)검사관여하에 김의진(金寬鎭)영도(永島)두변호인 렬석미레 열렷는데 두변호인은 피고 조이환의 성격이 너무나 엄격한관계로 경찰서에까지 인심을 일허 그가 평양지방법원으로 전근되음 긔회로 진주경찰서원이 활동을 개시하야 친소봉대격으로 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한것으로 원심판결은 증인들의 허위증언을 밋고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니 다시 사실을 심리하여달라고 진술한에 대하야 검사는 이사실은 적어도 검사의 몸으로 취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뢰물을 바터 편의를 도와주엇다는의심을바든것만도 부당하일인데 더구나그가 향응과 리물을 바든사실이 명확한즉 상고를 기각함이타당하다고 준엄히 론고하엿다 판결언도는 추후에 통지키로하고 동이십분에 폐정하엿다

家庭婦人을속이는 惡德行商人跋扈

【淸州】요사히 청주읍내에 신탄(薪炭)과 야채(野菜)의 부정행상인이 발호하야 가정부인을 속혀고잇다는바 자세한것을 듯건대신탄행상인은 시내에 약사십여인가량되며 상점을 가지고잇는자는 이상인바 이들이 파는시가대로 판다면 사는사람이 업는까닭으로행상인들은 시가에 상사할이상된것은대신교묘한수단으로근량을 속이는데 가령백관을 사서그후다시달어보면 륙칠십관밧게되지안는다한다 또한변오장림(長林)과 중헤판계로 야채류는 흉작인데대하야 그갑은상당한고가를 보이고잇는이때 이방면의 부정행상인도만허 팔십움메가량되는것을 백이십움메로교묘하게 달어보이며 그에대한갑을 밧는자가만허 당지경찰서에서는 철저적으로 단속하는일방 행상인에게 간찰(看札)가튼것을 주어서 이와가튼 악폐가업도록 만전을긔할방침이라고한다

社長以下 大部分檢擧
德力은臨時休業

긔부=덕력(德力)에관한 대금괴밀수출사건으로 사장이하사원거이전부가 검거망에걸린 명치정(明治町)일정목 덕력회사는 십팔일은 반휴상태로지나고 십구일부터는 완전휴업을하여버렷다 이로서 지난구일 석복사건(石福事件)이래 오날까지 폐점상태에잇는 황금정(黃金町)이정목석복광업주식회사(石福)와 아울러 시내에서쌍벽(双璧)을 자랑하든 지금상 두상점이 문을닷처고만 세움이다

【寫眞은本社來訪한新義州商業 럭비ー部一行】

運動競技

籠球리그第十二日 徽文、스俱各勝

中央基督教靑年會의 第十四中等校及 靑年籠球戰聯盟戰은 十九日 午後七時二十七分부터 鍾路靑年會 室內코ー트에서 열리엇다 第一次戰인 徽文對 道商戰은 道商戰初에 徽文과 伯仲之勢로 나아가드니 漸次로 徽文得勢하야 勝捷하엿다 그리고 靑友對 스파르타戰은 同點 또 同點의 白兵戰을 演하드니 스파르타俱樂部가 이겨서 勝章을 올리엇다.

徽文43(28/15 : 21/11)32道商

【第一次】徽文對道商戰은 十九日午後七時二十七分에·李嘉澤, 崔海龍兩氏審判으로開戰한바 結局四十三對三十二로 徽文軍이勝利하엿다

【徽文】		得	反
F	姜日東	13	0
F	尹恒敏	17	2
F	宋斗榮	0	0
C	黃奎鳳	8	2
G	申鳳浩	3	2
G	李明天	2	1
		43	7

【道商】		得	反
F	李相勳	19	2
F	孫光善	4	0
C	柳永一	3	4
G	韓哲洙	1	2
G	韓龍雲	5	3
G	柳基泓	0	0
		32	11

스俱32(18/14 : 15/16)31靑友

【第二次】靑友對스파르타俱樂部戰은同午後八時二十六分부터 張權、辛在麟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三十二對三十一의 熱戰끄테스俱가 艱辛히이겻다

【靑友】		得	反
F	孫禎俊	5	0
F	金振秀	12	0
C	李惠澤	6	3
G	羅寬淳	0	0
G	李永善	0	0
G	李性求	8	1
		31	4

【스俱】		得	反
F	[illegible]	8	1
F	[illegible]	0	0
F	[illegible]	4	0
C	金容武	7	0
G	安基澔	3	1
G	鄭庚燮	10	0
		32	2

第12日 現在

順位	【中等第一部】	試	勝	敗	率
1	培材	4	4	0	1.000
1	中東	4	4	0	1.000
2	徽文	4	3	1	0.800
3	[illegible]	3	2	1	0.666
3	[illegible]	3	2	1	0.666
4	[illegible]	5	2	3	0.400
5	[illegible]	3	0	3	0.000
5	[illegible]	7	0	7	0.000

順位	【中等第二部】	試	勝	敗	率
1	[illegible]	4	4	0	1.000
2	中央	4	3	1	0.750
3	[illegible]	7	4	3	0.571
4	[illegible]	4	2	2	0.500
4	[illegible]	4	2	2	0.500
4	[illegible]	2	1	1	0.500
5	[illegible]	4	0	4	0.000
5	[illegible]	3	0	3	0.000

順位	【靑年部】	試	勝	敗	率
1	延專	3	3	0	1.000
1	普專	3	3	0	1.000
2	스俱	5	4	1	0.800
3	[illegible]	3	2	1	0.666
4	[illegible]	3	1	2	0.333
5	[illegible]	3	0	3	0.000
5	[illegible]	4	0	4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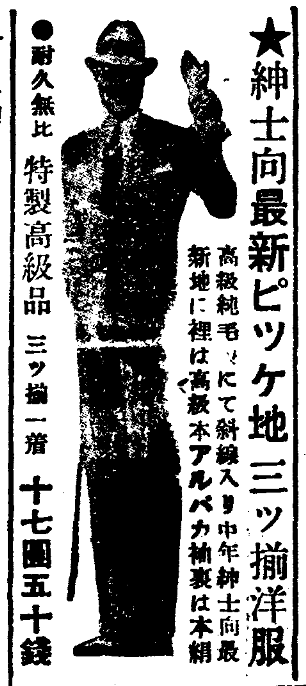
顧客本位의絕對責任附高級洋服原價提供

經濟的이고便利한弊社獨特하『洋裝の會』를利用하시오

洋服四つ揃並其附屬品內容 二十八圓の會와三十二圓の會

一、特撰の生地と最新の仕立背廣三ツ組一着 一、同上オーバ一枚 一、中折帽子一個 一、ネルワイシヤツ一枚 一、カラ一本 一、カウスボタン一組 一、ネクタイ一本 一、メリヤス一組 一、高級革靴一足。 ●卅二圓卅錢の會は勿論品物が違ひ

어느것이나 四割以上先金注文이아니면謝絕하오니 注文하실분은年齡및身長、寸法等을詳細히通知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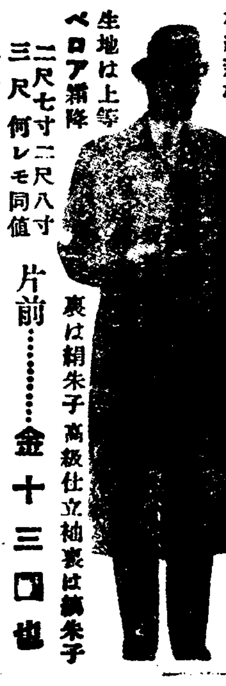


★紳士向最新ピッケ地三ツ揃洋服 高級純毛ㄴにて斜線入り中年紳士向最新地に裡は高級本アルパカ袖裏は本絹 ●耐久無比 特製高級品 三ツ揃一着 十七圓五十錢

★縞スコッチ三ツ揃 冬節用の 青年中年向紳士向としてアルパカ總裏付 耐久無類の高級背廣品 高級品……特價 金十三圓也 極上品……特價 金十四圓也

★寒帶地方絕好のサージ洋服 生地は極上サージ アルパカ總裏付 丈夫一点張りの高級仕立 背廣三ツ揃 金十六圓也 詰エリ一揃七圓也 背廣三ツ揃 金十七圓也 詰エリ一揃八圓五十錢

註文方法 [illegible] 東京市向島區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紳士向羅紗メルトンオーバ 生地は極上メルトン 裏は絹朱子 袖裏は絹朱子 色は紺黑茶 仕立並に附屬品は特に念入の紳士向として最適品 二尺八寸 三尺 三尺八寸 片前金七圓六十錢 兩前金八圓十錢

★最高級本ラクダオバー 上等純ラクダ生地 裏は本絹朱子 袖裏は本絹縞朱子 高等読向の仕立 色は紺黑 二尺八寸ヨリ三尺マデ同値 片前……金十七圓也 二尺九寸ヨリ三尺三寸迄同値 兩前……金十八圓也

★高級霜降新型オーバ 高級毛純杉綾新柄 生地は上等ベロア霜降 色は鼠、焦茶 裏は絹朱子高級仕立袖裏は絹朱子 二尺七寸 二尺八寸 三尺 何レモ同値 片前……金十三圓也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三寸同値 兩前……金十四圓也

★紳士青年向ウーステッド三ツ揃 本年大流行の紳士用ウーステッド地 ●最新柄純毛製 色は茶、濃茶、紺 小柄、中柄、大柄等あり。年齡色合御指定あれば見計ひ御發送致します 高級品 三ツ揃一着……十五圓五十錢 特製品 三ツ揃一着……十八圓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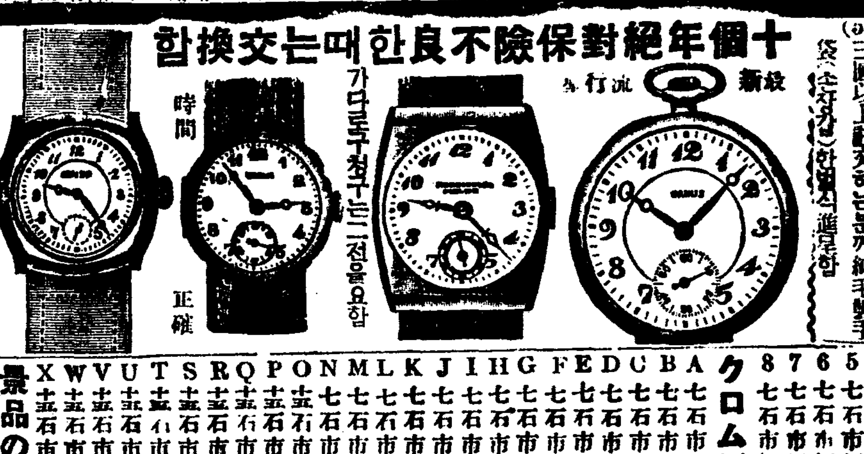
生殖強健化 不老長壽藥

醫學博士 伊藤先生推薦

トカピアン의偉力! 人間一生에잇서서 無上의歡樂을맛보아야할 靑春期를 [illegible] 生殖器衰弱으로 [illegible] 減退 [illegible] 不老長壽 [illegible] 京城洋藥化學研究所 [illegible] 三〇錠에二圓五十錢六〇錠에四圓八十錢이라고합니다

보라!! 堂堂한 此陣容 大景品附超特賣

十個年絕對保險不良한때는交換함



景品 (1)註文高三十圓以上은 [illegible] メルトンオー一枚中一品 (2)二十圓以上註文하는분께는 [illegible] (3)十圓以上註文하는분께 [illegible] (4)五圓以上註文하는분께 [illegible] 上下一着中一品進呈 (5)三圓以上註文하는분께 [illegible] 進呈함

◎註文은꼭前金으로送料는弊店에서負擔함
◎代金引換註文은四圓以上內入과送料一個四十錢加算別送할것
◎規定以外의代引註文은一切謝絕함送金은小爲替또는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으로申込할것

ウオルサム代用純國產精工舍製十六型懷中
1 七石市價七圓品特價三・五〇
2 七石市價八圓品〃四・三〇
3 七石市價九圓品〃四・五〇
4 七石市價十圓品〃五・九〇
5 七石市價十一圓品〃七・八〇
6 七石市價十二圓品〃九・六〇
7 七石市價十三圓品〃一〇・五〇
8 七石市價十四圓品〃一一・八五

クロム側16型懷中
A 七石市價七圓品特價二・六〇
B 七石市價八圓品〃二・九〇
C 七石市價十一圓品〃三・五〇
D 七石市價十二圓品〃三・九〇
E 七石市價十三圓品〃四・一〇
F 七石市價十四圓品〃四・四〇
G 七石市價十六圓品〃四・六〇
H 七石市價十七圓品〃四・八〇
I 七石市價十八圓品〃五・〇〇
J 七石市價十九圓品〃五・四〇
K 七石市價二十圓品〃五・六〇
L 七石市價廿一圓品〃六・一〇
M 七石市價廿二圓品〃六・七〇
N 七石市價廿三圓品〃七・〇〇
O 十五石市價廿四圓品特價七・九〇
P 十五石市價廿七圓品〃八・四〇
Q 十五石市價廿八圓品〃八・八〇
R 十五石市價廿九圓品〃九・一〇
S 十五石市價卅一圓品〃九・四〇
T 十五石市價卅二圓品〃九・八〇
U 十五石市價卅三圓品〃一〇・四〇
V 十五石市價卅五圓品〃一一・七〇
W 十五石市價卅六圓品〃一三・四〇
X 十五石市價卅九圓品〃一五・七〇

クロム側腕時計
〔11型〕
イ 七石市價八圓品特價二・六〇
ロ 七石市價九圓品〃三・八〇
ハ 七石市價十圓品〃四・五〇
ニ 七石市價十一圓品〃五・一〇
ホ 七石市價十二圓品〃五・九〇
ヘ 十五石市價十三圓品〃六・五〇
ト 十五石市價十六圓品〃七・〇〇
チ 十五石市價十七圓品〃八・六〇
〔10型〕
ヌ 七石市價 [illegible]
ル 七石市價十一圓〃五・三〇
ヲ 七石市價十三圓〃六・八〇
ワ 七石市價十五圓〃六・九〇
カ 十五石市價十六圓〃七・三〇
ヨ 十五石市價十九圓〃九・八〇
タ 十五石市價廿四圓〃一一・九〇
〔9型〕
レ 七石市價十八圓特價八・八〇
ソ 七石市價十七圓〃五・九五
ツ 七石市價廿二圓〃八・一〇
ネ 十五石市價廿一圓〃七・九〇
ナ 十五石市價廿六圓〃九・八〇
〔8型〕
ラ 十五石市價十九圓特價六・五〇
ム 十五石市價廿三圓〃八・五〇
ウ 十五石市價廿五圓〃九・八〇
ノ 十五石市價廿七圓〃一一・八〇
オ 十五石市價廿九圓〃一三・五〇

タバン・シーマ16型提
ク 七石市價十六圓特價六・九〇
ヤ 七石市價十八圓〃八・七〇
マ 十五石市價廿一圓〃九・六〇
ケ 十六石市價卅八圓〃一八・九〇

ウオルサム16型クロム側懷中
フ 七石市價二十圓品特價七・五〇
コ 七石市價廿二圓〃八・四〇
エ 七石市價廿四圓〃八・九〇
テ 七石市價廿七圓〃九・八〇
ア 七石市價三十圓〃一一・四〇
サ 七石市價卅二圓〃一二・五〇
キ 七石市價卅三圓〃一三・七〇
ユ 七石市價卅五圓〃一四・五〇
メ 十五石市價四十圓特價一六・六〇
ミ 十五石市價四十一圓〃一七・八〇
シ 十五石市價四十二圓〃一八・七〇
ヒ 十五石市價四十三圓〃一九・八〇
モ 十五石市價四十四圓〃二一・五〇
セ 十七石市價六十圓特價三〇・七〇
ス 十七石市價六十五圓〃三七・五〇

景品の關係上內金なき代引は絕對發送致しません

物品이不良한때는一週日內로보내주시는분께 換品또는返金하여드림 東京市淺草區松葉町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天賞堂

壽松校生은明春부터 貞洞校舊校舍에

新校舍는明春四月頃起工
工事費는明年度豫算으로

지난번에 전소되어버린 서내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普校)재건계획은 방금 경성부당국에서 연구중인데 때가 겨울이되여결빙기(結氷期)에 림박하엿스므로 갑작이 공사에 착수할수도업는 터인즉 결국 명년봄 해빙긔를 기다려 개축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재건축경비는 래년도예산에 세워서 그정식공사는 래년도사월중부터 시작할작정이라 한다 그리고 현재 수송 교동(校洞)청운(淸雲)덕수(德壽)등 네곳 학교의 강당을 가교사로 정하야 수업을하고잇는 생도들은 명년봄부터는 정동(貞洞)보통학교가 봉래정(蓬萊町)뒤ㅅ산에 신축중인 새교사로 옴겨감에따라 정동학교의 구교사를 사용하야 신축교사가 준공될때까지 수업을해갈 작정이라한다.

整理하면할수록 激增하는土幕과수분

官私有地合하야六百十一戶
昨年보다도百七十戶增加

경성부내에 산재한 토막(土幕)은 관유지(官有地)에 이백륙십일호(작년에는 일백구십륙호)와 사유지(私有地)에 삼백오십호(작년에는 이백사십오호)로합계 륙백십일호이며 불량주택(不良住宅)은 관유지에 천백십륙호(작년에는 삼백팔십구호)와 사유지에 일천구백륙십삼호(작년에는 륙백륙호)로 합계 이천륙백칠십구호인데 토막이나 불량주택이 모다 작년보다 훨신 만하젓다 토막은 경성부에서각 경찰서에 의뢰하야 작구정리하여 교외로 모라내고잇스나 농촌에서 살기곤난하야 경성으로 작구뒤를이어 모여드는 상태이므로 아모리 당국자가 도시미관(美觀)으로나 풍긔상으로 보아서 자미업는 존재라하야 이마살을 찌프리고 처리를 하고잇는터이지마는 좀처럼 근절할도리는업는터이다

朝鮮語標準語集을 單行本으로發刊

朝鮮語學會에서準備

부내 화동(花洞)에 잇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삼년간 세월을 허비하야 사정(査定)한 표준말(標準語)을 지난시월 이십팔일 한글 기념일로써 세상에 발표하엿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한바이거니와 경향각처에서 그사이 그사정(査定)된 표준어를 구하고저하야 조선어학회에는 물론 신문사에 까지 그청구가 매일 답지하는고로、 조선어학회에서는 그 사정한표준말을 지금 편찬하고잇는 사전(辭典)에 쓸준비로하고 다만 발표만하고 두기로 한것이나 일반사회의 요구가 이처럼 열렬한것을 살피어 전에 발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朝鮮語標準語集)을 다시 단행본으로 발행하기로 되엇는데 일반 응용의 편리를 주기위하야 거기에수집된 말을 폐지나되는 삭인(索引)을 부치어 다시인쇄하야 실가(實價)로 제공하기로하며 그회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기에 분주한다는데 약이개월이내에 발행될예정이라한다.

延普對抗柔道戰

二十八日、鍾路YMCA에서
專門校對抗은此一戰으로嚆矢

학원운동계의 쌍벽 보전(普專)과 연전(延專)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유도(柔道)대항전은 본사후원아래 오는 이십팔일오후두시부터 중앙기독교청년회운동실에서 장쾌한 육박전을 전개하기로되엿다 전문교유도대항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고결한 상무적정신(尙武的精神)을 함양하는 유도대항전인지라 이에 대한 긔대는 자못 크다 이 대항전은 제일회에만 끗칠비가 아니라 변중행사로 추긔에 일차식 개최하로기 되엿는데 이날은 이운동의 보급을 위하야 일반에게 무료공개하기로되엿다.

日本體協改革準備

【東京電話同盟】東京올림픽大會를 앞두고 斷行된 體協改組는 日本스포ー츠界에 大衝動을주고잇는데 嘉納名譽會長도 歸國하엿고 繼續하야 올림픽委員副島道正伯도 來二十六日에는 歸國케되엿슴으로 各加盟團體도 大體協改組案을 目標하고 그準備는 벌서부터 本格的으로되여 新評議員의 面影도 겨우內定하게되엿다 評議員되는 體協新「멤버」는 加盟十六團體의 會長 副會長을 網羅하야 잇스며 人物도 各方面의 有力者를 모아서 올림픽主催團의 運動界統制團體로서의 相應한 人物들이다 그리고 平沼(陸上) 今村(레스링) 森島 大島(馬術)의 諸氏는 正副會長或은 顧問等의 關係가잇슴으로 이번改組時에는 多少變更은 免치못할模樣이다

第三回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

日時 十一月二十一日(土)午後一時
場所 大峴町梨花女專體育館
第一回戰…A培花對開城好壽敦 第二回戰…元山樓氏對咸興永生、梨花對A의勝者 (入場은招待券持參者에限함)
主催 梨花女子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消防手表彰

경성소방서 뚝도정출장소(纛島町出張所)의 소방수 김창윤(金昌倫)천상(川上) 두소방수는 그들의 담당구역인종암정(鍾岩町)이 가장 위험하므로 어떠케든지 개선을 하고저종암정총대 정민수(鄭敏洙)씨와 의논하야 연돌의 공동구입을 계획하야 그자금의 일부로 의지옹에사 백수십개를 사드려서 고처부치고잇는중이라한다 이소문을 들은 신혜(新惠)소방서장은 그열심에 감격하야 십칠일에 그 두소방수를 표창하는 동시에 정총대 정민수씨에게 감사장과 상품을 증정하엿다한다

愛之重之玉童子도 生活難엔障碍物

【仁川】 여러자식들을 먹여살릴도리가업서 이웃집에 얼드려보내고 산모는유기죄로체포—인천부창영정(仁川府昌榮町)십오번지칠호 유봉애(兪鳳愛)는 녀되지못한 살림사리에 오남매를 먹여살릴도리가 업슬뿐아니라 젓먹이를다리고는 남의집드난사리조차 할수업슴으로 생각다못하야 산후구개월박게 아니되는옥동자를 그이웃박정구(朴廷鎬)씨댁 문전에 지난구월이십오일에 버렷든바 이천서에서는 이래사건의 본인을엄탐중 지난십륙일에 마친내발견하야 방금구이취조중이라는대 아모리생활난으로 인한것이라할지라도 유기죄는면하기어렵다한다

自稱警察署長 留置場身勢

술먹고 경찰서장이라고 뽐내든 사나이— 원적을 록아도현(鹿兒島縣)에 두고 충남 공주군 목동면 룡성리(公州郡木洞面龍城里)삼선광산(三善鑛山)에서 회계를 보고잇는 귀총량추(鬼塚良秋)(三七)는 십구일 오전한시쯤되여 신정유곽(新町遊廓)에서 『탁씨』운전수와 자동차삯때문에 시비를하다가 순시하든 소관본정서 최순사(崔巡査)가 보고 말림으로 나는 경찰서장이니 너가든순사쯤은 말도말라는고하며 가즌욕설을 다하다가 마츰내 본서로 끄을려가다 동서에서는취조를마치고 이십구일구류처분을 하여버렷다

럭비豫想 今日、京城球場 培材? 新高?

朝鮮豫選途上의 半島中等「럭비ー」界는 바야흐로 甲子園頭에 進出할 [illegible]機運이 닥처옴것을 豫言하고잇다 專門校로서는 普專이甲子園에 屢次出戰하야 決勝또는 準決勝에서 쓴잔을 도뫳스나 高普팀으로서는 朝鮮豫選戰에 떠러저 그優勝조차엇지못하엿섯든터인데 今二十日 午後四時 京城運動場에서 열리는 培材高普對 新義州高普戰과 同時에 龍山球場에서 열리는 龍中對京師戰의 두勝者가 二十二日(日)午後二時에 京城球場에서 決勝戰을 行하야비로소 朝鮮代表를決定하기로되엿다 이에 興味를 당기시든 新義州高普對 培材高普의 豫想을抄하야보기로하자

國境에서 虎視耽耽 오직實力養成에 注力하든 新義州高普는 昨秋에처음으로中央舞臺에進出하야 強敵養正에게十一對八의 『크로스게임』으로 惜敗한뒤이라 그들은 벌서 目標를 甲子園에 두고 中央의 強豪培材의牙城을 뭇질르려는 勇氣를가지고 지난十八日에 入京하엿다 陣容을보면 五年生이 十一名이나되며 三年前부터꾸준히 陣勢充實에만努力하면서 오늘이잇기를기다리든터이라 年來의 宿望이 達成되리라고 스사로밋고잇다 新高軍의 特徵은 堅忍不拔의 鬪志이다 其實自己들의 進步되는 力量을 測定할 相對조차업서서 對岸安東縣팀과 一年에 한두번 對戰할뿐인데 滿洲京城中等校들과 治伴한 實力을가진、鐵道局 京城工高팀을 新義州에 마저서 十一對五로 이를擊破한 新高軍은 意氣揚揚하야잇다 體軀가 크고 動作이 敏活할뿐아니라 모다 忠實한 플레이어들이다 다만 試合할 機會를 갓지못하야 팀의 強化에 恒常不利함을 늣기고잇다 따라서 規則見解를 달니할때가 잇서 때로는 「노불태클」或은「하킹」等으로 「페날틔」를 밧는일이잇섯다 그럼으로 昨年養正과의對戰에는 失點의半이「페날티」를이엿다는것으로보아 이번에는 特히 이點에注意할 必要를늣기지안을수업다

培材는 宿敵養正을물리치고自信滿滿한의 「피프틴」은 數만흔難關을 뚤코 多角的「플레이」는 勇敢行할수 잇스리만치洗鍊된 技術을 體得하고잇슴으로 新高의 突擊力에 伯仲之勢를보이는 兩軍은 當日의 좀처럼우열을뭇지 안흘것이다 『컨디순』如何로 勝負가 左右될 것이며明朗한「스포ー츠맨」의 精神으로 正正堂堂히 最後까지『페어플레이』를하야 勝敗를 超越한「럭비ー」의 精神이 두高普를 通하야發現되기를 바란다

永生女高籠球入京

梨專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三回全朝鮮女子中等校籠球大會에 出戰하는 咸興永生女子高普는 同校教諭白龍基氏引率下에 十九日朝에入京하야 大峴町梨專寄宿舍에 投宿하고 同校體育館에서 猛練習을 行하고잇다

運動界人事

▲新義州高普럭비部一行廿二名은 同校教諭李一成氏引率아래 入京次本社來訪

今日의運動

▲럭비=全日本中等學校럭비選手權大會 朝鮮豫選準決勝…新義州高普對培材高普 午後四時京城運動場◇龍中對京師 午後四時 龍山球場 (以上觀覽無料)
▲籠球=第十回 全京城籠球聯盟戰第十三日 京工對普成(午後六時半) 靑學對徽新(午後七時二十分) 延專對 다이거籠球團(午後八時十分) 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

主婦之友

斷然大評判!!
十二月號の編物附錄

新案防寒物の編方 卆種

이러한重寶이러한便利한防寒物은絶對로다시업다 費用도時間도이제까지의半밧게아니든다。和服이나、洋服이나、編物이나裁縫이나무엇이나잘된다。날근것으로經濟的이다、새것을만들수잇슴으로훌늉하게 幼兒用、男女少兒用、小學生用、老人用一切을만드는法으로 六十二種全部發表。이一冊만잇스면 한겨울을추위를모르고 지날수잇다、어데서나大評判!!

女の立場から 戀愛と結婚を語る座談會

森田たま、林芙美子、神近市子、坂西直子竹田文史等當代一流의婦人들만이모되여 女子의立場에서戀愛와結婚을大膽하게赤裸裸히討論한 空前의座談會 處女、婦人、어머니의必讀할「主婦之友」의重大記事

▲外に出て働く若き妻の秘密の惱みを語る座談會
▲遺傳黴毒で愛兒を狂人にした母の血涙記
▲稀代の大泥坊が傳授した盜難豫防の秘訣
▲男子の肩だけで婦人の結婚運を占ふ秘法

月給生活者の若奧樣が貯金のできる生活法を語る座談會

月給不過六七十圓으로子女를만히둔쌜러리맨의젊은婦人이、家計를훌륭하게한는秘訣을特別히『主婦之友』에發表한特別記事。이方法이면누구나滋味잇게시리貯金이된다。이야말로經濟에虎龍이라고大評判 司會는大妻コタカ先生。못보시면은大端한損입니다

新歸朝の賀川豊彥氏と山田わか女史の一問一答

「世界의聖者」하고 謳歌되여 歐米에서 大人氣의 賀川豊彥先生이 歸朝第一着으로 發表한 感激의一問一答 世界平和를高唱해 必死의努力을하는 歐米婦人들의 ...

▲亡き妻を語る 遞信大臣 賴母木桂吉
▲流行のウェーブを永保ちさせる秘訣
▲頭の疲れを治すマッサージの秘傳

肺炎で愛兒を失った母が涙で語る看護の秘訣

무서운 어린아해肺炎으로 失敗의經驗과 長尾博士의 親切한 忠告는 ...

▲インテリ婦人が商賣に成功した方法
▲名家のお歲暮品の買出し競爭
▲知らねば恥をかく贈物のお作法画報

迎年準備 奧樣の年末忙し画報

大評判の子供繪雜誌贈呈

別冊畫報 情熱の大阪の華訪問記

歡樂과產業의大都會大阪을 西條八十先生의詩와 宮本三郎畫伯의繪畫로 探訪한 繪畫訪問記이다

長篇小說 女性の冠(中野實)
長篇小說 人妻椿(小島政二郎)
菩薩の花(子母沢寛)
評判小說 禍福(菊池寬)
評判小說 子は誰のもの(竹田敏彥)
長篇小說 男の償ひ(吉屋信子)
繪畫小說 マダム探偵帖(田中比左良)
世界女人見物(西條八十)
レビュー女優ターキーとアンミツの試驗答案
足腰の冷えない新工夫の方法

料理

▲新婚한新婦의떠들은法
▲增稅는家庭經濟(下村海南)
▲疑獄에서男便을救한方法
▲新戚間의不和의解決苦心
▲凍瘡과皮膚乾燥의新療法
▲겨울毛織의簡單한洗濯
▲얼골의험과사마귀隱化粧
▲朝鮮婦人의生活寫眞探訪
▲白菜料理九種法
▲찬거리와밥짓는法
▲一般家庭의廚房探訪

別冊附錄つき 五十錢 (送料六錢)
東京神田 主婦之友社 (振替一〇八〇)

產業

農事試驗場等 府外로移轉決議
富平、議政府、永登浦、素砂等地를 有力한候補地로調査

十八日午前 京畿道에서는 道農事會議를열고 京畿道農事試驗場京畿道原蠶種製造所及蠶業取締所의 移轉을 決議하엿다——此等道農業關係機關은 崇高陽郡崇仁面龍頭里에 位置를定하야 二十年의 歷史를가지고잇는터인데 今春 京城府의 府勢擴張에 伴하야 그가位置하고잇는 一圓이 府內로 編入된關係로 不得已市外로 移轉하지안호면안되게되엿든바 이에伴하야 道農務課에서는 農試로하여금 本場의地價及 設定地의 地價調査를行케하게로된바 豫定地로서는富平、議政府、永登浦附近及 現在 分場이잇는 素砂等인데 其中에 有力한候補地로는 富平이모양으로 一方 今後短時日에 場所及地價를調査하야 年內로 用地買收에着手할모양이며 明春解氷과 同時에 開始할 計劃이라고한다

그런데 此等 道農業關係의試驗場은 今春 그地帶가 府에編入된 關係로 地價의 昂騰을보아 現在坪當 二十圓 乃至二十五圓의 高價를 唱하게되야 市外와 地價가 一、二圓內外의低廉한 地帶에 移轉하게되는 關係로 一擧兩得이된다고한다 現在 農試本場의 敷地만하야도約四萬三千坪이나 그低額이 八十六萬圓 乃至百萬圓에 達함으로 其他의 原蠶種製造所及 蠶業取締所를 合하면 相當히 巨額에 達하리라고한다。

京畿農試의沿革

本場은 大正六年四月 道告示第十五號에 依하야 京畿道地方費의 事業으로 設備되야 用地의買收와 借入에依하야 事務所其他 建築을마치고 同年九月부터事業을 開始엿다 爾來 諸般設備의 擴充을圖하야 水稻原種의育成、田作、園藝及畜產의 改良增進에 關한 試驗及 調査를 行하고 種苗、種畜、種禽、種卵의配付를 行하며 講習講話及 實地指導를 行하는等의 施設를하고또 昭和十二年度부터 道農會委託事業인 農事實習生의 養成에着手하고 다시 昭和九年度부터 施肥標準調査事業을 新設하야今日에 至하엿다

商銀惠山鎭支店設置決定

【惠山鎭】咸南惠山鎭은 날로發展하야 諸般施設의 整備를보고잇는 此際 今般 朝鮮商業銀行惠山鎭支店의 設置가 決定되야 來年鐵道開通과 同時에 그의設置를 보게되엿다고한다

木浦問屋組合役員會

【木浦】木浦物產問屋組合에서는 去十八日 同組合役員會를 組合事務所에서 開催하고 左의事項을 討議決定하엿다한다

一、商業專修學院에關한件
一、正租等取引의件
一、正租檢査에對한 人夫賃及受檢料에關한件
一、受檢組合設置의件

京畿道에서도 薄荷를奬勵
水原과振威에奬勵區設定

京畿道農務課에서는 農家의副業으로 明度부터 薄荷를 奬勵코저 三百圓의 補助로 與하야 第一着 奬勵事業으로 水原에三町五畝、振威에 三十町步의 奬勵區를 定하고 벌서 種根도 二千五百貫을 買收하기로되엿다는데 今後年年 繼續事業으로 大大的奬勵를할 計劃이라한다

朝郵一隻傭船

=朝鮮郵船에서는 朝鮮米積取調에備하야平安汽船所有熱田丸(八五〇噸)을今月下旬부터 來年四月까지 傭船하얏는데 南朝鮮方面에 配船한다

殖業債券發行中止

殖銀에서는 歲末關係에備하야 債券一千萬圓發行을 計劃中인데 日本內地市場取入은 目前硬化로 困難함으로 年內은 中止키로決定하얏다

間島의自作農 創定計畫順調
鮮滿拓殖에移管

東拓의 間島에잇서서의 自作農創定은 五個年計畫 五千戶設定計畫下에 每年 十萬圓의 政府補助를바더 昭和八年부터 開始하야 今年은 그四年人재에當하는바 이미四千餘戶의 設定을 終了하고 順調로 進行中인데鮮滿拓殖會社成立으로 朝鮮農民의 滿洲移民은 專혀 同社가 遂行하기로 되엇스므로 東拓은 今年度限 右計畫을 中止하기로決定하엿다 또 既設自作農은 鮮滿拓殖에 移管하게될 模樣이다

工業鹽官營안코 食鹽增產에注力
◇…穗積殖產局長談

工業鹽의 官營은 全然안코民間에서 生產케하겟다 朝鮮에서는食鹽增產에 쏘겨서 第二期의增產計畫이 昭和十四年度에 完成되더라도 아직 一億斤의 不足을告할 豫想이므로 이擴張計畫을 樹立치 안흐면 안되겟다民間에 工業鹽을 經營시키는데는아직 九千町步의 鹽田適地가保留되어잇스므로 이一部로부터開放할터이다. 政府의 方針은 日本의勢力圈內에서.五年後의 工業鹽計畫을 樹立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需要高가 約百七十萬噸으로 그中 八十萬噸生產을 할수잇게되어 잇스므로 아직九十一萬噸의 不足이다 이 不足量은 亦是 外國으로부터 供給을 밧지안흘수업는것만큼 日本에서 生產시킬 方針을 取하고잇다 朝鮮의 工業鹽의 需要는 約十二萬噸이므로 民間에 二千町步의鹽田을 開放케하면 될터로 이에 依하야 自產自給케할수잇게된다

工業鹽의 自家輸入은 곳에따라 價格이 低廉하므로 制度를變하야 價格統制를 할 必要가잇기때문에 政府에서는 自然이를 買上하야 平均하야 파는것이 專賣이라는데 賣錢하엿다 機械製鹽은 日本內地에서 하고잇는데 이는 眞空管式으로 海水에서 直接 製鹽하는것으로 將來는 鹽田과 機械製鹽과아울러 製鹽하야 鹽價를 引下할 計劃이다

目下 日本內地의 食鹽의 生產高는 六十萬噸으로 需要高九十萬噸 結局 卅萬噸의 不足임으로 今後 八個年을 期하야三期增產의 七十五萬噸으로하고現在의 百斤三圓五十錢의 價格을 最大二圓五十錢으로 引下할計畫이다 그러나 朝鮮은 現在一圓五十錢임으로 別問題이다 何如間機械製鹽은 大阪에서 東京專賣局中央研究所에서의 研究에 依하면 機械製鹽으로는 噸當二圓의 製鹽과同時에 金屬마구네슘을 取할수가 잇슴으로그것이 實現되면 採鹽과 副產物程度의것이 될것이다 右方法은 遼遠이잇스나 如何하야 工業化할것을 考慮코 잇다 無水酒精은 日本內地에서는 昭和十三年度부터 [illegible]

『호프』增產計畫
六百町步栽培目標로
咸南道에서十個年計畫樹立

今年부터 栽培에 着手한 咸南道의『호프』栽培面積은 現在二十町步에 不過한데 道에서는그成績이 順調임에 鑑하야 十個年計畫으로 昭和二十年까지 그栽培面積을 六百町步로 擴張하야 年額三百萬圓에 達하는 外國產『호프』의輸入을 完全히 防止할 計畫이라고한다

忠北家內工業 奬勵

忠北道의 昭和十二年度 道豫算은 各主務課에서 編成中인데 其中 產業課의 計畫으로는 農村의 家庭工業을 助長하고자 機業農家에 改良機具를補助하며 各地에 共同作業場을增設하고 機業講習會를 開催하야 技術을 涵養식히며 各地旣設機業組合을 擴張하고 滿州洋襪組合에는 指導員을 設置케하고자 目下 計畫을 樹立하는 中이라 한다

平南道山林課에서는 同山林課에서는 製品에 對한 一般的認識의 向上을 爲하야 努力한 結果 平壤府에서는 大端한 好評을 가튼 都市에서는 今月中旬의 林產副業品 卽賣會에서는 出品全部가 賣盡되는等 陽德木工品은 都市進出의 길이널니열리고잇슴으로 山林振興의 見地에서 鄕土藝術品으로서의 地位를 確立하도록 一層 그奬勵에 拍車를 加할터이라한다

鰮魚群搜査에 飛行機無電活用
東海岸漁組飛機購入

東海岸의 漁場開拓에 總督府에서는 일즉이 保護監視船照鳳丸을 新造하야 大大的으로 活躍을 繼續하고잇든바 今回 다시 飛行機와 無電에依한 魚群搜査에着手하기로되엿다 卽現在東海岸鰮漁業에는 巾着網二百十隻 이에運搬船을 加하야約八百隻의 活動을 보고잇는데 魚群을 發見하기에까지는 一日一隻 平均十時間을 要하야 燃料로 十八圓 合計一萬四千圓의 燃料가 每日虛費됨으로 그虛費를 덜며 또魚群의 敏速을 期하기爲하야 科學陣의 出動을 보게되리로 東海岸의 漁業組合으로부터 約五萬圓을 捐出하야 飛行機를購入하야 이에無電을 裝置하고 魚群의搜査에 出動하야 發見될때는 海上에 游動하는 漁船에無電으로 連絡하며 漁船은 十數班으로分하야 海上各地點에 散在하야 飛行機로부터의 偵察報告에 依하야 出漁하게됨으로 東海岸鰮漁獲陣營에 一大新機能을加하기로되엿다 그런데 日本內地에서는 靜岡에서 鰮漁에 和歌山에서 鯖漁에 飛行機로 魚群搜査를 行하고잇는데 朝鮮의漁業에 잇서서는 더욱 意義잇는 일이라고한다

漁業의王座 鰮漁業趨勢 (二)

◇漁業의種類

鰮漁業은 거이 流網・巾着網・定置網의 三種中의 其一에依하고잇다。

流網漁業은 魚群이 移動通過하는 場所를 選擇하야 이를遮斷할과如한 位置에 網을치고 魚族을 網目에 걸리게하야 漁獲하는 漁法으로 本漁業에依한漁獲高는 第三表에서 보는바와가티 鰮漁業中第一位이다。 巾着網은 近年朝鮮에서도 其性能이確認된後로는 해마다 本漁業에依한 漁獲高는 著增하야 昭和九年에잇서서는 거이 流網과 互角의 漁獲을하게되엿다 巾着網漁業은 發動船을 使用하야 魚群을 追跡하야 이에 網을 둘러치고 沈子部分을 網으로 조이어 網底를만드러 魚族의逃途를 斷하야 漁獲하는 漁法으로 巾着網漁業은 機船을 使用하는關係上 比較的多額의 設備資金을 要함으로 漁業金融이열린後 비로서 盛히 使用되게된 漁法이다 定置網漁業은 所謂免許漁業으로 朝鮮漁業令에依하야 漁業權을 設定하게되는데 漁業權은法律上 物權으로 土地에 關한規定이 準用되어 漁業權設定地區內의 漁業에 關하야서는 權利法律的保護를 밧는것으로 定置網漁業도 勿論 法律에 依하야 排他的 漁業上의 保護를 밧는다 定置網漁業에對하야 簡單히 其漁法을 說明하면 魚族游泳의方向을 誘導하는垣網, 垣網에引導되어 魚族이迷入하는 圍網、圍網內 魚族을 捕獲하는 袋網의 大別三部分으로되어잇는데 此等을 敷設하기爲하야 一定한 水面을 占有하고行하는漁法이다。

▲大羽鰮漁具別漁獲高道別年次統計表(昭和五年乃至同九年)

年別 漁獲別 / 道別		慶尙南道	慶尙北道	江原道	咸鏡南道	咸鏡北道	合計
昭和五年度 流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巾着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置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六年度 流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巾着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置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度 流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巾着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置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度 流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巾着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置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度 流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巾着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置網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價額은單位圓 數量은單位...

京畿道甘藷 旱水害不拘豐作
收量二十三萬三千貫

京畿道의 今年甘藷는 豐作으로 道農會 補助地 二百十七町二段에서 段當二百貫의好成績을 示하야 總收量二十三萬三千貫에 達하는바 昨年과 거의 同樣한成績이라한다 그런데 今年은旱魃과水害의 해임에도 不拘하고 이와가든好成績을示하엿슴은 甘藷는 元來旱魃에 忍耐하는 作物일뿐아니라 그栽培에 잇서서 瘠地를 利用하야도 充分한收量을 어들수잇는데 此等瘠地는比較的 高所이기때문에洪水被害도적은 關係라고한다

平南木工製品好評

平南道山林課에서는 陽德道有林의 優秀한 林野를 中心으로 林利開發向上에 專力中 昭和九年度부터 長期木工講習會를 陽德邑內에서 開催하야 그技術的敎養을 圖하고잇슴으로 最近에는 優秀한 生產品을 市場에내어보내어 陽德木工品의 聲價를 揚하야 萬丈의 氣焰을吐

日用商品市況
京城(十一月十七日)

◇菜蔬類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石油箱 [illegible]
玉蔥 十二貫 [illegible]
靑蔥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果實類
苹果 紅玉 三貫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同 祝 同 [illegible]
梨 今村秋 三貫 [illegible]
同 博多 青 [illegible]
同 北海 同 [illegible]
蜜柑 紀州 石油箱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家畜飼料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蠶蛹乾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鷄虫用粉 二斗五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碎 九十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碎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魚粉ㅅ粕 十貫 [illegible]
粃 八五斤 [illegible]
蠣殼 百二十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四尺幅 二寸目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同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同 五分目同 [illegible]

◇毛皮類
암고라兎毛 三吋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同 트 同 [illegible]

◇川魚類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뜸부기 一升 [illegible]

◇家畜類
鷄卵 百個 [illegible]
鷄 一貫 [illegible]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鴨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棕櫚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氏名
一三六九三	金銀鑛	全北沃溝郡沿縣面	十一月十一日	群山府明治町 邦彦
一三六九四	金銀鑛	咸南水興郡横川面	〃	京城府明治町 小林采男
一三六九五	金銀鉛	江原洪川郡化村面	〃	京城府吉野町 青山靜寬
一三六九六	金銀鑛	全南光陽郡津上面 多鴨面 玉龍面	〃	京城府明治町 小林 [illegible]
一三六九七	金銀鑛	江原原州郡興業面	十一月二日	京城府蓬萊町 朴來榮
一三六九八	金銀鑛	江原伊川郡方丈面 咸南德源郡豐下面	〃	[illegible]
一三六九九	金銀鑛	全南羅州郡鳳凰面	〃	[illegible]
一三七〇〇	金銀鑛	全南羅州郡鳳凰面	〃	[illegible]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illegible]

◇訂正 十一月十七日附 本欄發表中 [illegible]

雙虹舞 【42】
方仁根作
金奎澤畫

사랑의승리(四)

광훈은 돌에 이슬이 잇서안지못하고 바위에 걸터안저서이생각 저생각을 바위처럼 굴리고 잇섯다。 그는 오늘이 몹시 기뻐고도 슬픈날이라고 하엿다 은영과가티 어여쁘고 깨끗하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다는것은 한울에 다흔 기쁘지마는 부모도업시 친척도업시 집도업시 혼인하다는 것은 몹시 슬펏다。

그의부모는 어려서 세상을떠낫다。 어머니는 광훈이 세살적에 도라갓다고하니 어머니의얼굴은 기억조차 업섯다。 아버지는 그가 여덟살되든해에 세상을 떠낫다 그래서 광훈은 지금것 아버지의얼굴만은 기억한다。 행여 그얼굴을 이저버릴가하여 자조자조 생각을해두고어떤때는 그림으로 그려두기도하엿다。 그러나 어느때는 아버지의 얼굴이 분명히 나타나기도하고 어느때는 희미해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아니하엿다。 그러기는 광훈은 원체어머니업는 홀아버지와 가진쓰라린생활을하엿기때문에 이상ㅅ기픈것이엇다

그의고향은 평양에서 삼십리쯤 들어가는 외촌이엇다。 그의아버지는 남의땅을 붓처 겨우살아가는데 상처를 한후에는 가난해서 다시혼인을 못하는지마음에실어서 그런지 어린 아들광훈을 다리고호라비 살림을하는것이엇다。 아버지가 농사하고 밥을짓고옷까지 꼬매며그날그날을 입에풀칠해가며 사는것이엇다。 광훈이 조금큰뒤에는 나무도해오고 밥할때 불도때여주엇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에일하러나가던지 혹은 성(평양)에들어가든지하면 혼저 동구마니집을직히고 잇노라니 무섭고도외로워 엉엉울기를 몃번이나하엿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아버지가오면 얼마나 반가웟는지 모른다。 어떤때는 아버지와 함께 들로나가서 아버지는 김을매면 종일 밧두덕에 쪼그리고안저서 기다리기도하고 성에들어갈때면 아버지등에업히여 함께가기도하엿다。 이러케 몃번 생애를이거서 회려하고 팽장한 평양을구경하게되엇다。

그러케 한울치러것고 멋지럼의지하고 살든 아버지가 광훈이 여덟살되든해 정월에 어린광훈을 내버리고 저세상으로 가버리엇다。 광훈은 아버지가 무스병으로 죽엇는지 지금것궁금하지마는 알길이업섯다。 오래신음하신일도업고 며칠만에 갑작이 죽은것이다。 죽을때 아버지는 광훈의 손을 잡고 눈을감지도못하고 뜬채 죽엇다。

광훈은 너무 무서워

『아버지! 아버지!』하고 브르다가 울어버리엇다。 그우는소리에 동내사람이와서 광훈의아버지의 뜬눈을 손으로 쓰서서감기엇다。 광훈은 그래도 아버지가 죽은줄은 몰랏다。 얼마잇스면 깨여나려니 생각하엿다。 그러나 그얼굴을 덥고 동내사람이 몃치와서

『아이그마 광훈이 불상도 하지!』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울엇서

『너이아반이 업시 어린게혼저 어찌사노』하고 말하는 눈치로 아버지가 죽은것을비로소께닷앗다。 광훈은정신이 앗슬하기만하고 무엇이무엇인지몰랏다 그러나 눈물도나오지 아니하엿다。 그러나 정말 그아버지가 땅속에파뭇칠때 광훈은 엉엉발버둥치며 울든것이 생각날뿐이엇다。 그후로는 광훈은 동내집으로 개처럼 굴러다니며 살앗다。 그어린것이지마는 남의집에가서잇지나 시키는대로 일을하엿다。

그러나 누구하나 자기를 귀여워하는사람도업섯고 밤이나 낫이나 외롭고 슬펏다。 그래서그는 오직사랑하는게 개와소와고양이 그런짐승이엇다。 그런것들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가탓다。 그밧게 가마귀가리 참새그리고는 나뷔 매미 풀닙이 귀뜨람이 벳쟁이 개미 벌 이런것들이 자기동무와가티 생각되엿다。 개똥벌레 잠자리나 종연실지어 굼벵이까지 버레지한버레지는다 귀여워보엿다。 사람은자기에게 랭정하고 무서운지마는 버레지만은 자기가 추물은는대로 가만히잇섯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버레지를 사랑하기시작하엿다。